

# 與 참패후 발걸음 빨라진 고건

## 내달 중 '희망한국국민연대' 결성... 개혁세력 연대 민주선 대권후보 영입 표명... 정계개편 논의 주목

정치권의 움직임에 예의주시하던 고건 전 총리가 드디어 칼을 빼들었다. 5·31지방선거가 여당의 참패로 끝나고 고건 총리가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함으로써 그동안 잠복해있던 정계개편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고건 총리측은 7월 중 '희망한국국민연대'라는 이름의 단체를 결성해 중도실용주의 개혁세력의 폭넓은 연대를 모색하기로 했다. 정치권에서는 고건 총리의 이같은 행보를 지금까지 숨겨왔던 대권플랜의 첫 단계인 공식적인 정치활동 선언으로 간주하는 분위기다. 정치권의 이따름 '리브롤'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고건 총리가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게 된 것은 집권여당의 참패로 끝난 5·31 지방선거 결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보인다.

고건 총리는 자신의 정치적 주기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당과 민주당과 거리를 두면서도 향후 촉발될 정계개편 과정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중도실용주의 개혁세력 연대'라는 카드를 던졌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선거에 패배한 우리당 내부에서 패인을 둘러싼 노선분쟁이 촉발되고, 혼란이 가중될 경우 우리당 내 일부 세력이 탈당하고 고건 총리 주변으로 모여드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우리당 내에는 적게는 2~3명, 많게는 30명 가량의 의원이 고건 총리에게 우호적인 세력으로 분류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법

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민주당 한화갑 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민주당 일부가 고건 총리에게 흡수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또한 고건 총리가 우리당, 민주당과의 3자 연대가 실현될 경우 자신의 지분을 극대화하기 위해 서둘러 단체를 설립하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고건 총리의 행보가 가시화됨으로써 정계개편 논의또한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도실용주의 개혁세력을 아우르는 신당 성격의 연대모임을 결성하겠다는 고건 총리의 플랜은 사실상 여당의 분열을 전제로 한 시나리오의 성격이 강하다. 선거참패의 충격으로 당내 세력들이 제 살길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고건 총리의 '연대' 시나리오가 현실적 동력을 가질 것이란 분석이다.

이와함께 선거참패의 충격속에 구심력을 상실한 여당의 '핵분열'도 정계개편이 촉발될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도 높다. 당장 지도부 공백으로 구심력을 잃은 여당은 향후 당의 진로를 놓고 분열 수순을 밟을 것이란 게 정치전문가들의 대체적 시각이다.

또 광주·전남이라는 확고한 지역기반을 가진 민주당이 정계개편을 주도하는 시나리오도 나온다. 여당이 주장하는 민주개혁세력 대연합론의 '민주당' 관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갖는 군소정당의 한계를 감안할 때 정계개편을 '주도'하기 보다는 일종의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정계개편 핵' 부상 고건 친위조직?

정계개편의 핵으로 떠오른 고건 전 총리의 친위조직은 '우민산우회'와 '미래와 경제포럼(이하 미래와 경제)'로 크게 나뉜다. 우민산우회는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진 정치적 조직이다. 애초 순수한 대중조직으로 출발했지만 고건을 내세우는 조직을 여기저기서 만들어지면서 정치적 혼란을 막기 위해 최근 조직화 작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지난 5월초 건국대 부총장을 지내고 김서준총연합회공동대표직을 맡고 있는 김수선씨를 대표, 전 개혁당 사무

정도 인사가 경합을 벌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남본부의 경우 정승기 전 대법대학장과 최승규 6·15 공동위원회 광주전남 공동회장이 공동본부장을 맡기로 했으며 22개 시군구에 지부장을 두기로 하고 인물 선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오는 8일 목포 웨딩파라에서 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를 가질 계획이다.

'미래와 경제'는 고건 전 총리의 정책 자문 그룹이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조직망을 갖고 있지는 않다. 이 모임에는 이세중 변호사와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

### ①'우민 산우회'-전국 조직망 가진 정치집단 ②'미래와 경제'-이세중씨 등 정책자문 그룹

총장을 지낸 고도환씨를 사무총장으로 각각 추대하는 등 지도부를 구성했다. 전국에 16개 본부, 273개 지부 조직을 만들고 있다.

우민산우회 광주본부는 지난 4월28일 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를 갖고 구성됐다. 본부장은 심재규 파라세호텔 회장이 맡기로 했으며 선거구별로 ▲동구지부장은 최동림 대성약국 대표 ▲서갑지부장은 조기선 변호사 ▲서술지부장은 고재정 조선대총동창회 사무총장 ▲남구지부장은 서정성 중앙안과 원장 ▲북지부장은 오기만 전 연정 전남회장 ▲광산지부장은 이현선 전 송정농협조합장이 임명된 상태다. 북갑지부장은 5명

사장, 최열 환경재단 상임이사, 박관삼 전 KBS 사장, 송월주 전 조계총총무원장 등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 종교계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에는 양희창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장, 고재방 광주대 교수, 박종렬 변호사 등 20~30여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외에도 팬클럽 '고사모(고건을 열렬히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임) 우민회'와 청년조직 '고청연(고건 대통령 후보 추대 전국 청장년연대)' 등이 고건 전 총리의 대통령 만들기 작업을 위해 조직을 꾸리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시설

## 정책기조 수정하는 건 '레임덕'이 아니다

5·31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완패한 후 노무현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이 취하고 있는 입장에 대해 말들이 많다. 노대통령은 선거 다음날 "민심의 흐름으로 받아들여졌다"는 말과 함께 현 정책기조는 흔들림 없이 밀고나가겠다고 했다. 여당이 패해도 너무 참담하게 패했다고 그 원인이 노대통령과 청와대에 있다는 것을 국민 누구나 다 아는 상황에서 나온 대통령 코멘트치고는 일반적인 자성도 보이지 않는 코멘트라게 일반적인 평이다.

물론 지방선거에 패했다고 해서 노대통령과 청와대가 정책기조를 일시에 포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공허한 개혁'에 대한 국민의 거부가 표로 드러난 이상 반대가 많은 정책들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노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은 정책들을 수정하다 보면 바로 레임덕

(집권후반 권력누수)에 빠지게 되는 것을 경계하겠지만, 이는 또 다른 독선에 불과하다. 틀린 줄 알았으면 고쳐야 하는 게 순리다.

청와대의 정책기조 고수는 만신창이가 된 여당과 또 다른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크다. 열린우리당은 쟁점 정책인 사회 양극화 극복·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부동산 대책·사법 및 국방 개혁을 가운데 야당과 국민이 반대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과감한 손질도 마다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은 그동안 청와대로부터 일방통행식으로 내려보내 이를 정책에 대해 충분한 토론과 공론화 과정 없이 이를 국회에서 입법으로 뒷받침 해주었지만 이런 달라지겠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이를 막으려 한다면 나라는 또 시끄러워질 것이다. 국민의 지지를 잃은 정권은 더 견뎌야 할 필요가 있다.

## 실질국민총소득 감소에도 경제 낙관론인가

실질 국민총소득(GNI)이 1년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2006년 1-4분기 국민소득'에 따르면 국민소득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GNI가 전반기에 비해 0.6% 감소했다는 것이다. 그만큼 벌어들인 소득으로 물건을 살 수 있는 구매력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말이다.

1분기 실질 무역수입이 16조8천억원에 늘어났을 때부터 이미 실질국민소득 감소는 예견된 것이었다. 고유가와 원고(高)로 수출기업의 체산성이 극도로 악화되면서 수출기업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특히 한국은 경쟁국들에 비해 환율하락 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라 중소기업들의 대처가 사실상 불가능한 정도다. 수출 실적증가에 비해 손실도 커지는 비정상적 기업경영이 국민총소득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경제 낙관론을 굽히지 않고 있다. 대다수 민간 경제 연구소들은 5% 성장은 이미 물 건너간 것으로 보고 있다. 인플레이션 공포가 엄습하면서 세계 경제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대외 의존도가 심한 우리 경제는 하반기가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책 당국자들은 여전히 올해 5% 성장이 가능하다는 낙관론을 펴고 있다. 정부가 민간 기업과 정반대의 시각으로 경기를 전망하는 바람에 효율적인 정책 수립도 기대하기 힘들게 됐다.

국민소득의 실질 구매력이 줄어들면 경기 회복에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정부의 대처는 안이하기 짝이 없다. 경기 진작에 도움이 되는 동원 가능한 모든 정책을 펴야 한다. 실물 경기를 정확히 진단해 이에 걸맞는 시장 친화적 처방이 시급하다.

## 광주 '6·15대축전' 부대행사

### 14일부터 금남로 등 '주먹밥 나눔행사' 등 다채

오는 14일부터 광주에서 열리는 '6·15 민족통일대축전' 기간 동안 금남로 등에서는 '환영단 주먹밥 나눔행사'와 '남북어린이 나눔운동'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열린다.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상임대표 백낙청·이하 위원회)는 2일 광주시 서구 삼무동 5·18기념재단에서 '6·15 민족통일대축전 행사위원회' 결성식을 갖고, 축전 기간 동안 열릴 부대행사를 발표했다.

위원회가 밝힌 행사는 ▲환영단 주먹밥 나눔행사(금남로) ▲남북어린이 나눔운동(민주의 종 공원) ▲6·15 6월 기념 학술대회(전남대 국제회의동) ▲8도 풍물장터(옛 전남도청) ▲아름다운 우리강산전시회(옛 도청 전시관) ▲교사문화제(시청 앞 문화공연장) ▲6·15 통일가죽 골드벨 등이다.

위원회 김정길 운영위원은 "5월 정신을 통일로 승화할 수 있도록 주먹밥 나눔행사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기획했다"면서 "구체적인 행사 일정과 내용은 오는 6일 개성에서 열리는 실무회담이 끝나봐야 결정될 것 같다"고 밝혔다.

백낙청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5월 광주는 이미 아시아와 세계의 것이 됐지만, 아직 전국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6·15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 5·18의 전국화와 평화통일의 초석을 다지자"고 말했다.

한편 '6·15 민족통일대축전'은 오는 14일부터 3박 4일 동안 광주에서 열리며, 남·북과 해외 대표단 4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2일 오후 광주시 서구 삼무동 5·18기념재단에서 개최된 '6·15 민족통일대축전 행사위원회' 결성식에서 백낙청 상임대표 등 300여명의 각계 인사가 축전의 성공을 기원하고 있다. /위적량기자 jrwi@kwangju.co.kr

## 북한 대형 열차사고 1천명 사망설

최근 북한에서 열차가 충돌, 1천여명이 숨지는 대형사고가 발생했다고 한 대북인권단체 소식지가 전해 사실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북인권단체인 '좋은 벗들'은 1일 발행한 소식지에서 "지난 4월 29일 함경남도 고원군 부대산역 근처에서 평양-광강행 열차와 고원에서 양덕으로 올라가던 화물열차가 정면충돌한 대형사고가 일어났다"며 "이 사고로 열차승객 1천여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특히 여객열차는 만기제대 군인과 최근 새로 입대한 군인이 탑승한 군인수송 특별열차여서 사망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좋은 벗들'은 "사고원인은 여객열차가 고원군 부대산역 근처의 내리막길을 달릴 때 기관차에서 압축기 고장이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소개했다. /연합뉴스

### 유치송 前민한당 총재 별세

5공시절 야당인 민주한국당(민한당) 총재를 지낸 원로정치인 유치송 현정회 원로회의 의장이 2일 자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82세.

고인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직후인 1948년 해공 신익희 선생 비서로 정치에 입문, 6대와 9~12대에 걸쳐 5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특히 지난 81년 제5공화국 출범 당시 유일야당인 민한당 총재로 12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유족으로는 아들 일호(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씨와 딸 현숙 현방 씨를 낳았다. 발인 5일 오전 8시, 민소 서울대병원 장례식장(02)2072-2091 /연합뉴스



### DJ 방북문제 등 현안 타진

#### 남북 '경험위' 제주시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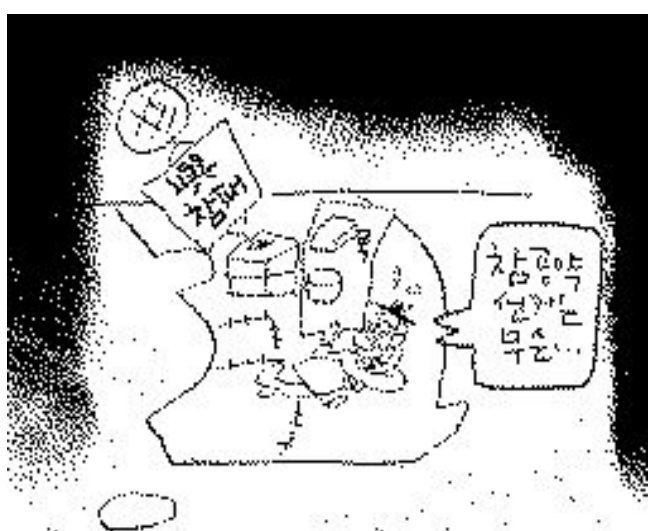
남북은 3일부터 나흘간 일정으로 제주에서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협위) 제 12차 회의를 열어

경공업-지하자원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이번 경협위는 북측이 지난달 25일 예정됐던 경의선,동해선 열차시범운행을 일방적으로 무산시킨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남북간 고위급 대화라는 점에서, 열차시범운행, 김대중(DJ) 전 대통령 방북 문제 등 현안에 대한 북측의 입장을 타진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박병원 재경부 제1차관과 주중한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을 각각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 대담단은 제주 경협위 회의에서 경공업-지하자원 협력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 빛日만평

- 김중두



'목사발 선거'가 맞겠다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略	사장 편집·발행·인쇄인 白仁鎭	편집국장 池炳源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시가 100-111	광주광역시 서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	222-8111(지사·지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대표) 222-4918	사회 2부 2200-619	총무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대외) 222-4918	(FAX) 227-0118	(FAX) 222-8005	(FAX) 222-019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FAX) 2200-521	판매부 2200-551
정치부 2200-616	여론제작부 2200-628	(FAX) 227-9500	(FAX) 227-9500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1부 2200-618	사건부 2200-690	사업2부 2200-552	(FAX) 02-773-9335
(FAX) 222-4277	조사부 2200-570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